

있었으며,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적 담론으로 넘어가면서 기억이 인간 인식에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분명하게 자리매김한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 BC384~322)는 앎의 단계를 네 개로 나누어 제시한다. “첫째가 감각(aisthēsis)으로 감각 기관을 통해 외부 세계를 감지하는 작용이고, 둘째가 기억으로, 감각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유지하는 힘이다. 감각이 사라진 후에도 심상(phantasma)을 간직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세 번째가 경험(empeira)으로, 기억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개별대상에 대한 감각과 기억을 새로운 사태에 적용하여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다. 경험은 감각과 기억의 순수개별성을 넘어선다. 네 번째가 참된 앎(epistēmē)의 단계로, 대상에 대해 이유와 원인(aitia), 즉 이론(logos)을 갖는 원인과 원리(arkhē)를 아는 것이다.”³⁵⁾ 이때의 기억은 감각이 가져다준 심상을 간직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기억과 이미지(象)가 결합되어 있다. 이후 로마에서 수사학이 발전하면서 기억과 기술이 결합되고 기억술에 대한 이론이 정리된 것이다.

3. 『서국기법』의 작상론의 이론적 근거

서양 전통 기억술의 이론은 원래 기본적으로 문자론과 전혀 상관이 없다. 로마 시절 『헤렌니우스에게 바치는 수사학』³⁶⁾에는 기억에 관한 이론이 다음과 같이 소개되어 있다. “발견이 제공하는 생각거리의 보고이자 수사학을 구성하는 모든 분야의 수호자³⁷⁾라고 할 수 있는 기억에 대해

35) 김현, 「기억에 관한 고대 그리스 로마의 몇 가지 논의」 참조.

36) *Rhetorica ad Herennium*, BC90년 경 키케로(Marcus Tullius Cicero, BC106~43)가 지은 것으로 알려진 수사학 책이다. 이 논문에 인용된 것은 기억에 관한 부분으로, 제3장 16~24절에 해당되며, 김기훈의 번역을 참조하였다.

37) 수사학이 다루는 연설의 세부는 서론, 사실 기술, 찬반 구분, 증명, 논박, 결론 등

알아본다. 기술적 기억은 장소(locus)와 모상(imago)으로 구성된다. 장소란 자연적으로 또는 기술적으로 설정해 놓은 작고, 흠잡을 데 없고, 눈에 잘 띄는 그런 장면들로 천부적 기억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이다. 집, 기둥 사이의 공간, 구석, 아치 등이 이에 속한다. 모상은 말 그대로 기억하고자 하는 형체, 흔적, 사물의 모사물 같은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말의 모상, 사자의 모상, 독수리의 모상이 그런 것이다. 기술적 기억의 핵심은 기억하고자 하는 모상을 특정한 장소 안에 내려놓는 것이다.”³⁸⁾ “이미 만들어져 있는 모상을 외워서 익히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모상을 찾는 수고 없이도 배울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몇 가지 점에서 그들의 방식에 반대한다. 첫째, 수도 없이 많은 단어들 중에, 1,000개의 단어에 상응하는 모상을 만든다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발상이다. 무수히 많은 단어의 저장고 속에서 이때는 이 단어를, 저때는 저 단어를 기억해야 하는데, 이 얼마나 변변찮은 가치를 가지는 일인가? 그 다음, 우리는 왜 누군가를 그 열정(industria)으로부터 떼어놓으려 하는가? 즉, 그가 그 무엇도 탐구하지 않도록, 우리가 찾아서 마련한 모든 것을 그에게 건네주려 하느냐 말이다. 어떤 이가 선호하는 것을 다른 사람은 선호하지 않을 수 있다. 종종 어떤 형태가 다른 것을 닮았다고 할 때, 우리는 보편적인 동의를 얻는 데 실패한다. 왜냐하면 사물들은 사람에 따라 다르게 여겨지기 때문이다. 모상도 마찬가지다. 내 눈에는 정교하고 잘 만든 모상이 다른 사람의 눈에는 크게 두드러지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각자 자신에게 맞는 모상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³⁹⁾ 위의 설명에 의하면

여섯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에서 ‘발견이 제공하는 생각거리의 보고(寶庫)’는 발견의 단계에서 찾아내는 논거나 주제가 기억에 의해 유지되고 보관됨을 의미하고, ‘수사학을 구성하는 모든 분야를 수호’한다는 표현도 수사학의 각 부분 내지는 분야를 기억으로써 보전하고 공고히 할 수 있다는 의미다. 『헤렌니우스에게 바치는 수사학』, 제3장 16~24절.(김기훈 번역과 주석 참조)

38) 『헤렌니우스에게 바치는 수사학』.

39) 위의 논문.

서양의 기억술은 연설을 잘 하기 위해서 연설가가 갖추어야 하는 수사학적 분야의 하나로, ‘기억하고자 하는 그려낸 이미지(모상)을 특정한 장소 안에 내려놓아서’ 보다 쉽고 빠르게 기억해야 하는 원래의 말과 의미를 불러내는 기술이다. 이때의 장소는 모상의 저장고와 같은 것이고, 모상은 어떤 특정한 사물에 대해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각자의 형편과 여건에 따라 임의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마테오리치는 이러한 기억술에서 활용되는 장소배치법과 모상작성법을 한자 기억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서양에서도 뿌리 깊은 이론과 변용의 역사를 가진 기억론과 기억술을 한자에 적용시켜 인간 영혼의 능력으로 설명하려 한 마테오리치는 과연 어느 정도의 성과를 달성하였을까. 무엇보다도 마테오리치는 중국의 전통적인 육서론의 용어를 기억술의 象(imago)과 연관시켜 보려고 하였다. 그는 「입상편」에서 ‘正象’, ‘借象’, ‘作象’의 분류법을 다음과 같이 육서론에 적용하고 있다. “실제로부터 형태를 얻은 글자는 실제로 있는 그 물건의 형상(象)이다. 그러나 실제로 있는 물건의 글자는 대단히 적다. 실물이 없는 경우에는 형상을 빌릴 수(借象) 있고 형상을 만들 수(作象) 있으며, 또한 허상(虛象)으로 실물의 글자(實字)를 기억(記)할 수 있다. 이 형상(象)을 통해서 기억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잊지 않게 만든다. 그러므로 정상(正象)과 차상(借象)과 작상(作象)에 대해서 내가 법을 활용하여 일관되게 설명하면(活法以通之) 다음과 같다. 日, 月 자 등은, 그 사물의 형상(物之象)에 의거해 그것을 기억하므로 이것들은 근본적인 형상(本象)에 속하며 상형(象形)과 같다. 本, 末 등은 작상(作象)에 포함되며 지사(指事)라고 한 것과 같다. 明, 衆, 見, 拜의 글자들은 모두 또한 작상(作象)에 속하며 회의(會意)라고 하는 것과 같다. 狗, 描, 屮, 醇 등은 같은 발음(同音)을 가지고 있기에 그를 취하여 실상(實象)을 기억하는 것으로 차상(借象)에 속하며 가차(假借)와 해성(諧聲)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 吏, 兵 등은 뜻(意)에 의거해 글자를

만들었기에 육서(六書) 가운데 소위 전주(轉注)와 같은 것이다.”⁴⁰⁾

그러나 마테오리치가 열심히 설명하고 예를 든 글자들은 엄밀하게 상형에 해당되는 것을 제외하고 중국의 전통적인 육서론의 관점에서는 적절하게 해명된 것이 아니다. 그저 해서의 자형에서 파자하여 임의의 기준으로 象(imago)의 활용법에 적용해본 것이다. 물론 이들 한자들이 마테오리치의 기억술과 상기술의 이론에 적용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따진다면 이 설명을 모두 잘못된 것이라고 간주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기억술 운용자가 불러내는 이미지의 임의성을 가지고 판단한다면 한자는 결코 간단하게 장악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다음 장에서 마테오리치의 작성법이 어떻게 중국문자의 상형성과 괴리되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4. 중국 전통의 상형론과 형성론

마테오리치가 기억으로 불러오고자 한 한자의 예들과 중국 전통적 문자론의 얼마나 괴리되어 있는지 몇 가지를 들어보자. 우선 마테오리치는 『명용편』에서 장소배치법을 설명하고 사방에 배치할 문자의 예로 ‘武’, ‘要’, ‘利’, ‘好’자를 들고 있다. “대체로 기억법(記法)을 배우려면, 먼저 물건의 형상(物之象)에 근본한 것에서 사건의 형상(事之象)에 근본한 것으로 미치게 하고, 각각의 장소(處所)에 차례대로(次第) 배치한다(安頓). 그래서 그것을 형상기억법(象記法)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武(무), 要(요), 利(리), 好(호)의 네 글자를 기억하려면 머릿속으로 방 하나를 만들어 놓는다(默置一室). 방에는 네 구석이 있으니 그곳을 배치의 장소(安頓之所)로 삼는다. 즉 동남방 구석이 첫 번째 장소, 동북방 구석이 두 번째 장소, 서북방 구석이 세 번째 장소, 서남방 구석이 네 번째 장소가 된다. 武자

40) 『서국기법』 제4편 「입상편」.

는 용사가 전투복을 입고 창을 들고서 싸우려 하는데 한 사람이 팔뚝을 잡아 막으려고 하는 형상(勇士戎服, 執戈欲鬥, 而一人扼腕以止之之象)을 취하여 武자로 합하여 만든 것인데, 동남방 구석에 배치한다. 要자는 서하 회회족 여인의 모양(西夏回回女子之象)을 취하여 要자로 합하여 만들었는데, 동북방 구석에 배치한다. 利자는 한 농부가 낫을 들고 밭에서 벼를 베는 모양(一農夫執鎌刀, 向田間割禾之象)을 취하여 利자로 합하여 만든 것인데, 서북방 구석에 배치한다. 好자는 머리를 올린 한 여인이 어린아이를 안고 얼러주는 모양(一丫髻女子, 抱一嬰兒戲耍之象)을 취하여 好자로 합한 것인데, 서남방 구석에 배치한다. 네 글자를 네 개의 장소에 이미 배치하고 나서 그것을 기억(記憶)하고자 하면 그 방을 머리에 떠올리고(默念其室) 각각의 구석에서 찾는데, 그러면 저절로 그 형상을 얻게 되고 그 형상으로 인하여 그 글자를 기억하게(憶) 될 것이다.”⁴¹⁾ 여기에서 설명된 ‘武’자는 용사가 전투복을 입고 창을 들고서 싸우려 하는데 한 사람이 팔뚝을 잡아 막으려고 하는 형상으로 떠올려진다.

그런데 중국의 문자는 한 글자마다 아주 오랜 해석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武자 하나만 예를 들어도 이곳에 숨은 의미와 이미지는 결코 단순하지 않아서 한자의 상형성이 과연 하나의 이미지로 환원될 수 있는지 묻게 한다.⁴²⁾ 원래 武자는 발(止)모양과 창(戈)모양으로 구성된 것이다. 단순한 발 모양이지만 ‘止’의 자형으로 표상되는 의미는 한자 곳곳에서 복잡하게 드러난다. 한대(漢代)에 만들어진 자전 『설문해자』(說文解字)를 살펴보면 자형에서 표상되는 의미는 하나의 이미지로 잡히지 않으며 마치 가족을 거느리는 가장처럼 의미와 이미지의 무리를 만들어낸다. 발 모양을 상형한 글자에서 출발한 ‘止’자가 실제로는 발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멈추다’, ‘그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발을 떠올리면 우선 먼저 ‘걷다’, ‘어딘가

41) 제2편 「명용편」 참조.

42) 줄고(2009. 5), 「象形性에 의한 중국 문자 의미 분류에 관하여: 『說文解字』의 예를 중심으로」, 『중국문학』 59집, 참조.

로 가다’ 등의 동작이 연상되며 상상을 더하면 ‘발로 차다’, ‘발을 이용하여 춤을 추다’ 등을 떠올릴 수 있다. 이런 연상들과 비교해서 ‘멈추다’, ‘그치다’는 의미는 외형상으로는 상반되어 보인다. 발이 가지는 역동성에 비해 정적인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것 같아 보이는 의미가 어떻게 하나의 자형과 발음 안에 연계되어 있는 것일까?

‘止’자의 ‘멈추다’, ‘그만두다’라는 의미에 관한 가장 유명한 역사적 용례는 아마 “止戈爲武”일 것이다. 이 구절은 실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첫 번째는 “止자와 戈자를 합하여 武자를 만든다”는 해석이다. 이것은 아무런 가치 판단을 하지 않은 사실 기술이다. 글자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자 구성에 대한 설명은 ‘武’자를 단순 정의하는 데 유용하다. 예를 들어 갑골문에서는 ‘武’자는 止와 戈로 구성되어 있고 용례를 살펴보면 정벌하여 무위를 과시한다는 뜻으로 쓰였다. 이때의 止는 발로 걸어간다는 의미고 戈는 무기를 뜻하고 있다.⁴³⁾ 금문에서는 군사, 무공, 용맹함, 무사 등의 의미로 쓰였으며⁴⁴⁾ 혹은 王이 덧붙여진 글자가 보이는데 이것은 周武王을 나타내는 고유명사로 쓰인 것이다.⁴⁵⁾ 이렇듯 소전(小篆) 자형 이전의 용례들은 ‘止’자를 ‘발’, ‘걷다’ 또는 ‘행군’ 등의 의미로 해석하는 데에 무리가 없음을 보여 준다. 두 번째는 “무기를 들고 전쟁하는 것(戈)을 멈추는 것(止)이 진정한 무위(武)다.”라고 해석하는 것이다. 두 번째의 해석은 결코 간단한 논리에 의해 나온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戈’에도, ‘止’에도 ‘武’에도 글자를 통해 드러나는 단순한 이미지와 의미를 가지고는 결코 이 해석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원래 ‘武(무)’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살펴보면 분명히 무기를 들

43) 于省吾, 『갑골문자고림』 참조. 우성오는 허신이 초창왕의 설명을 가지고 斷章取義한 것이며 그것이 武자의 본의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44) 『虢季子白盤』, 『(虜)羌鐘』 등의 용례 참조.

45) 『利簋』, 『孟鼎』 등에 보임.



<그림 1>

고 전쟁터를 향해 가는 모습이다. 그런데 왜 ‘武(무)’자에 있는 ‘止(지)’의 모양을 ‘발’이라는 뜻으로 풀이하지 않고 ‘멈추다, 그치다’의 의미로 풀이하였을까. 혹시 ‘武’자를 두고 전쟁을 하기 위해 무기를 들고 전진하는 모습이 아니

라 무기를 들고 싸우는 전쟁을 그만둔다는 뜻으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止’자가 ‘멈추다’, ‘그만두다’의 뜻으로 풀이된 것이 아닐까 의심된다. 그 의심은 허신은 『說文解字』의 ‘武’자 설명⁴⁶⁾에 의해서 증폭되는데 그 해설은 다음과 같다. “武, 楚莊王曰, ‘夫武, 定功戡兵, 故止戈爲武’(武자에 대해서 楚莊王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무릇 무력, 무위(武)는 전공을 확정하고 병기를 거두어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무기를 뜻하는 戈자와 그만두는 것을 뜻하는 止자가 武자를 구성하고 있다’).” 사실 허신의 武자에 대한 설명은 『左傳』의 기술에 근거하고 있다. 원래 이 구절이 등장하는 이야기는 『左傳』에 처음 보이기 때문이다. “반당(潘黨)이 말하였다. “왕께서는 어찌하여 군영을 짓고 쯤나라 전사자의 시체를 모아 구경 거리를 만들지 않습니까? 신이 듣기로는 적에게 이기면 반드시 그 자손들에게 보여서 武功을 잊지 않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초나라 왕(楚子)이 말하였다. “그것은 네가 알고 있는 바와 다르다. 문자에서 止와 戈를 합하면 武자가 된다. 武王이 商을 이기고 頌을 지어 말하기를 무기를 거두어들이고 활과 화살을 주머니에 넣었도다. 내 몇몇한 덕을 구하여 지금의 중원에 널리 퍼서 王者로써 천하를 保有하리라라고 하셨다. 武라는 것은 난폭한 자를 억누르고 무기를 거두어들이며 큰 나라를 보유하고 공을 세우며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고 만민을 화락하게 하고 물자를 풍부하게 하는 것이다.”⁴⁷⁾

46) 『설문해자』에는 제12편 하 ‘戈’부에 부속되어 있다.

47) 『左傳·宣公』 12년 : 潘黨曰, “君盍築武軍而收晉尸以爲京觀? 臣聞克敵必示子

이것은 신체적 경험에서 출발한 하나의 개념이 어떻게 역사적 경험을 포함하여 변화, 확장된 범주, 혹은 개념으로 정착되는지 보여주는 예다. 반당이 알고 있던 의미가 당시 일반적으로 유행하던 武자의 의미일 것이다. 그러나 초장왕은 그것을 뒤집었다. 원래는 무기를 들고 전쟁터로 행군하던 모습이었으나 이제는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떳떳한 덕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 그것이 武의 진정한 의미라는 설명이다. 『설문해자』에 의하면 ‘止’자에 관한 이러한 개념은 ‘止’를 포함하고 있는 ‘正’자나 ‘是’자에도 그대로 적용된다.⁴⁸⁾

역사적 경험과 그것에 관한 의미 있는 해석은 자형에서 떠올리는 이미지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중국인들에게 낯낯의 한자는 일시적인 기억 이미지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마테오리치가 문장을 기억하는 예로 사용한 『논어』(論語)의 첫 구절 ‘學而時習之, 不亦說乎’는 더욱 낯설게 다가온다. “모든 기억(記識)은 혹은 글자나 구절을 따라서 하기도 하고, 혹은 전체 뜻을 모아서 파악하여 하기도 하는데, 모두 어렵고 쉬움과 많고 적음을 따라 (적절히) 힘을 헤아려서 사용하면 된다. 예를 들어 ‘學而時習之, 不亦說乎’(배우고 때로 익히면 기쁘지 않은가)⁴⁹⁾라는 구절을 기억하려면, 우수한 학동이 서서 서책을 보고 있는 것(俊秀學童立觀書冊)으로 學자를 생각하고, 무사가 삼지창을 거꾸로 들고 있는 모양(武士倒提銳爬)을 가지고 而자를 그린다. 또한 해가 절 앞을 비추는데 어떤 한 사람이 쳐다보고 있는 것(日照寺前, 一人望之)으로 時자를 그린다. 혹은 성(姓)이 時이거나, 이름이 時인 사람으로 (기억한다). 해에 두 날개가 생겨서 어떤 한 사람이 놀라서 바라보고 있

孫, 以無忘武功.” 楚子曰, “非爾所知也. 夫文, 止戈爲武. 武王克商, 作頌曰, ‘載戰于戈, 載囊弓矢. 我求懿德, 肆于時夏, 允王保之.’……夫武, 禁暴、戢兵、保大、定功、安民、和衆, 豐財者也…….”

48) 『說文解字』 제2편 하 ‘正’부, ‘是’부 설해 참조.

49) 『論語·學而』 1章: “子曰, 學而時習之, 不亦說乎. 有朋, 自遠方來, 不亦樂乎. 人不知而不慍, 不亦君子乎.”

는 것(日生兩翼, 一人駭觀)으로 깎자를 그린다. 혹은 성(姓)이 깎이거나 이름이 깎인 사람으로 (기억한다). 한 사람이 일척 가량의 나무를 잡고 그 머리를 자른 것(一人持尺許之木, 削斷其頭)으로 자자를 그린다. 한 사람이 어깨에 창을 가로로 걸고 허리에 두 개의 추를 매단 것(一人肩橫一戈, 腰懸兩錘)으로 찢자를 그린다. 찢은 전문(篆文)으로, 곧 亦자이다. 부열이 바위성을 쌓은 것(傳說築巖)으로 說자를 취하거나, 혹은 한 사람이 손뼉을 치며 얼굴을 위로 하고 웃는 것(一人拍手仰面而笑)으로 또한 說자를 그린다. 어떤 외국인이 외국 복장을 하고 앉아 있는 것(一胡人胡服而居)으로, 乎자를 가차(假借)한다. 이상의 아홉 글자는 글자를 따라서 모양을 그린 것인데, 순서를 따라서 아홉 군데에 두면 이것이 바로 하나의 글자를 하나의 장소에 맡기는 예가 된다.”⁵⁰⁾

여기에서 설명된 글자 이미지는 ‘亦’자를 제외하고 어느 것도 말이 되지 않는 것들이다. 삼지창을 거꾸로 들고 있는 것이 而자라든지, 나무의 머리를 잘라버린 것이 자자가 된다는지 하는 설명은, 외국인이 한자를 익혀야 하는 고충을 나름의 방법으로 고심하고 있음을 알게 해준다. 게다가 당시 통용되는 해서 자형을 마음대로 파자하여 임의로 해석하고 그것에 기억하기 좋은 그림과 이야기를 붙여내는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다. 앞서도 ‘武’자를 가지고 논의했듯이 과연 그렇게 기억한 한자가 하나의 이미지와 의미만으로 장악되었는가. 단계가 깊어질수록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위험성이 더 크다.

내가 살펴보기에 무엇보다 마테오리치가 가장 설명하기도 곤란하고 기억술로 포섭되지 않는 영역은 육서에서 소위 형성(形聲)에 해당되는 부분이었다. “같은 발음(同音)을 취하여 실상(實象)을 기록한 것으로, 차상(借象)에 해당되며 마치 가차(假借)와 해성(諧聲)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입상편」에서 설명하고, 심지어는 반절법을 운용하여 “사람의 머리와 양의 몸(人首羊身)을 취하여 人羊切의 攘자”의 이미지를 만들

50) 제5편 「정식편」.

라고 하였는데, 그는 도저히 象으로 ‘성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을 것이다. 주유쟁도 『해제』에서 마테오리치의 형상기억법을 왕안석의 『자설(字說)』⁵¹⁾과 같이 오로지 자형의 이미지에만 근거하여 해석하는 것으로 설명할 정도로, 마테오리치의 한자 해석은 象에 경도되어 있다. 그러나 아무리 왕안석이라 해도⁵²⁾ 그의 문자 설명이 마테오리치처럼 중국의 전통 경학적 맥락을 완전히 벗어난 임의적 해설이라고 볼 수는 없다. 결국 마테오리치가 끝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바로 자형의 이미지로 불러 오기에 많은 무리가 따르는 ‘성부’였다.

원래부터 한자는 태생적으로 자형-의미와 소리-의미의 복합적 관계로 구성되어 있다. 성부로 확정된 부분은 발음을 표상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불러오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다닌다. 그래서 형성자이면서 회의자인 글자들이 무수히 존재한다. 이 문제는 전통시기의 육서론자들을 고민스럽게 만든 것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정초(鄭樵, 1104~1162)의 『통지』(通志)·『육서략』(六書略)이나, 대동(戴侗, 1200~1285)의 『육서고』(六書故) 등은 기본 자형에서 파생되는 발음과 의미들이 또 다시 결합되어 어떻게

51) 다음은 「字说序」의 원문이다. “文者，奇偶剛柔，杂比以相承。如天地之文，故谓之文。字者，始于一二，而生生至于無穷。如母之字子，故谓之字。其声之抑扬开塞，合散出入，其形之衡纵曲直，邪正上下，内外左右，皆有义，皆出于自然，非人私智能为也。與伏羲八卦，文王六十四，異用而同制，相待而成『易』。先王以为不可忽，而患天下後世失其法，故三岁一同。同者，所以一道德也。秦烧『诗』『书』，杀学士，而于是时始变古而为隸。盖天之丧斯文也，不然，则秦何力之能为？余读许慎『说文』，于书之意，时有所悟，因序錄其说为二十卷，以與门人所推经义附之。惜乎先王之文缺已久，慎所记不具，又多舛，而以予之浅陋考之，且有所不合。虽然，庸詎非天之将兴斯文也，而以予赞其始，故其教学必自此始。能知此者，则于道德之意，已十九矣。”

52) 왕안석은 동시기의 정치가 사마광(司馬光, 1019~1086)처럼 복고의 의미에서 예제(禮制)가 올바르게 세워져야 하고 그 과정에서 훈고학, 경학, 문자학이 사용되어야 한 데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 당시 유행하던 운서를 배제하고 자형(形) 중심의 자서로부터 논의를 시작하긴 하였지만, 왕안석의 훈고가 처음부터 전통 훈고의 방식을 파괴하려는 시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襄相圭, 『北宋代 文字學의 思想史의 意味-王安石 『字說』을 중심으로』, 서울대 東洋私學科論集, 제32집. 227-258쪽 참조).

확장되는지 체계적으로 설명하려고 했던 저작들이다.⁵³⁾

중국문자에서 발음을 나타내는 성부가 불러내는 의미 혹은 이미지의 문제는 ‘상형’ 이미지로만 제한되지 않는 중국어 고유의 특성이다. 예컨대 근대 이후로 중국의 문자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국학자 장병린(章炳麟, 1869~1936)도 그의 저작, 『문시』(文始)를 통해 고민한 것은 어떻게 하면 한자가 자형 의미가 소리 의미와 함께 파생하고 확장되어 가는지 분명한 원리를 발견하려는 것이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설문』(說文)의 독체(獨體)를 취하여 초문(初文)이라고 명명한다. 생략되거나 변형된 것, 합체의 상형과 지사, 성부가 있으나 자형이 망가진 것, 같은 자체가 중복된 것을 준초문(準初文)이라고 한다. 이들은 모두 510자이며 457조로 합한다. 유사한 사물을 연구해보고 성운(聲韻)을 비교해보면 음의(音義)가 서로 짝을 이루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변역(變易)이라고 한다. 의미가 소리로부터 파생되면 자유(孳乳)라고 한다. 연이어 순서를 지으니 약 5-6천 단어를 얻을 수 있었다. 비록 요지를 얻지 못하고 빠진 곳이 많이 있을지라도, 형제와 소리가 서로 도와주기를 뜻한 것이었으니 치우친 논의와는 다를 것이다.”⁵⁴⁾

이러한 뿌리 깊은 고민은 청대의 고증학자들이 명쾌하게 정의한 표어로 드러난다. 바로 ‘성부를 통해서 의미를 찾아낸다(因聲求義)’는 말인데, 소리를 중개로 하여 펼쳐지는 의미의 세계는 중국 전통의 오천년의 경험과 역사, 그리고 그것을 반영하는 기록과 언어문자의 축적으로 응축

53) 왕안석 또한 넓은 의미에서 그곳에 포함되는 사람이기도 하다. 그러나 왕안석은 너무나 자형에 치우쳐서 성부의미를 오로지 상형적인 의미론의 방향으로 끌고 가 버렸다(黨懷興 著(2003), 『宋元明六書學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54) 장병린(1999), 『文始』(『章太炎全集』 7권, 上海人民出版社, 160쪽): “刺取說文獨體, 命以初文, 其諸省變, 及合體象形指事, 與聲具而形殘, 若同體複重者, 謂之準初文, 都五百十字, 集爲四百五十七條. 討其類物, 比其聲均, 音義相讎, 謂之變易. 義自音衍, 謂之孳乳, 埒而次之, 得五六千名. 雖未達神旨, 多所缺遺, 意者形體聲類, 更相扶胥, 異於偏舛之議.”

된 것이라서 ‘성부’가 단순하게 ‘소리’만의 반영도 아니고 ‘의미’의 과잉 해석으로 선불리 달아나 버릴 수도 없음을 극명하게 지적하고 있다.⁵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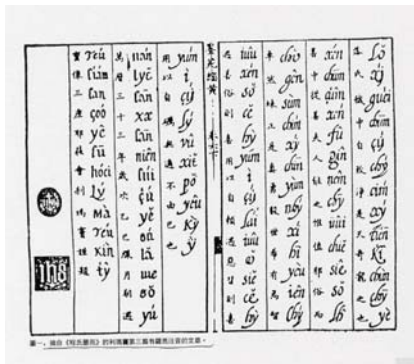
한편으로는, 기억술을 발전시켜온 서구의 역사에 대응하여 ‘기억’은 중국전통에서 중시된 적이 있는가, 중국에도 분명히 훌륭한 ‘기억력’을 소지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을 무시하지는 않았는데 왜 더욱 중시하여 이론화하고 계승시키지 않았는가, 등의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이다. 실질적으로 수많은 한자들을 기억하여 작문을 한 중국전통시기 문인들은 어떤 방법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질문도 여전히 유용할 것이다. 그 대답은 쉽지 않으나, 기억을 대하는 태도와 관념이 서구와 중국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기억술이 수사학의 한 분야로 발전했다는 점을 통해 보아도, 서양은 구어의 전통이 강하고 언어표기도 그것에 종속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수사적인 언변을 과히 중시하지 않고 과거 성현들의 기록의 소중함을 그대로 간직하기를 추구했던, 중국은 경전의 문자를 감히 임의로 바꾸지 못하였고, 다분히 문어적이고 문자적인 기록을 후대로 변하지 않고 전승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그러기에 중국문자는 기억자의 상황과 능력과 조건에 따라 임의로 장소를 설정하여 기억했다가 다음에는 다시 다른 것으로 바꾸어서 활용할 대상이 될 수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한자의 형상이 과연 서양에 기억술을 적용할 수 있는 기억의 대상인가도 다시 물어야 할 것이다.

5. 실패한 ‘상기법’(象記法)의 대체 방법: 중국어 사전과 문법서의 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중국문자인 한자를 빨리 습득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초기부터 예수회 선교사들이 중점을 두고 착수했던 일은

55) 서통장, 『語言論』, 3편 제2장 참조.

『서국기법』 방식의 형상기억법이 아니라, 사전편찬사업이었다는 점이다. 이것을 염두에 두었을 때 오히려 『서국기법』의 저작의도와 그 결과가 선명하게 보인다. 1582년 마카오에 도착한 마테오리치는 루제리와 함께 중국어 학습을 시작했다. 조경(肇慶)으로 옮겨간 후 1584년 무렵에는 그는 이미 상당히 중국어에 유창했고 서면어를 쓸 수 있게 되었다. 1591년 소주(韶州) 시절부터는 사서(四書)를 라틴어로 번역하기 시작하였고, 1595년 남경(南京)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중국어의 문언문과 구어에 능통하였다.⁵⁶⁾ 『서국기법』이 지어진 것은 바로 이때였다.



<그림 2> 서자기적(西字奇蹟)

마테오리치는 몇몇 간단한 글자를 형상으로 기억하는 방법 외에 발음으로 불러내는 방법을 병용하였을 것이다. 그 첫 번째 증거는 『포한사전』(葡漢辭典)의 편찬이고, 또 하나의 증거는 1605년에 마테오리치가 펴낸 『서자기적』(西字奇蹟)이라는 책이다. 이 책은 라틴 자모를 가지고 한자에 음을 표기한 최초의 책으로 알려

져 있다. 소실된 것으로 여겨졌으나 후에 로마 바티칸 도서관의 영인본을 얻을 수 있었고 『정씨묵원』(程氏墨苑)⁵⁷⁾이라는 책에 실려 있어 확인되었다.⁵⁸⁾ 북경에서 각인되었고 모두 여섯 쪽의 소책자로 세 편의 문장

56) 楊福綿, 『羅明堅和利瑪竇的葡漢辭典(歷史言語學導論)』, 103쪽(Dicionário Português-Chinês. *Pu-Han cidian* 葡漢辭典. *Portuguese-Chinese Dictionary*, Instituto Português do Oriente (IPOR) 東方葡萄牙學會, and Ricci Institute for Chinese-Western Cultural History 利瑪竇中西文化歷史研究所, 2001).

57) 『程氏墨苑』(十二卷), 明代 程大約이 편찬한 책이다.

58) 吳吉龍(2002), 『漢語拼音의 歷史의 배경과 現代化』, 中國人文科學, 443-467쪽 참조.

을 포함하고 있다. 문장은 마테오리치가 손으로 한자를 쓰고 한자 옆에 라틴어 발음 표기가 있다. 문장의 내용은 성경의 이야기로 1편의 주제는 ‘信而步海疑而卽沈’(믿음을 가지고 바다 위를 걸어가며, 의심하면 빠지게 된다)이고, 2편의 주제는 ‘二徒聞實卽捨空虛’(두 명의 사도가 실상을 듣고 공허한 이론을 버린다)이고, 3편의 주제는 ‘嬌色穢氣自速天火’(요망한 색과 더러운 기운을 취하면 스스로 하늘의 지옥 불을 재촉한다)이다. 그로부터 얼마 안 있어서 1606년 마테오리치는 이 세 편 문장의 초본(抄本)과 네 폭의 삽화(그 중 세 편은 성격의 이야기를 묘사한 것이고 한 편은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의 그림이다)를 정대약(程大約, 1541~1616)에게 건네주고 ‘述文贈幼博程子’(幼博程子에게 글을 지어 줌)라고 제목을 붙였다. 정대약은 이것을 그의 『정씨묵원』에 수록하여 후대에 전했다.



<그림 3>

이들 문장에 사용된 로마자 주음 계통은 바로 『포한사전』(葡漢辭典)에 이미 사용된 것이었다.⁶⁰⁾ 『서자기적』이 나오기 전인 1583년~1588년에 예수회 선교사들은 이미 한자 어휘 사전을 정리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59) 『程氏墨苑』에 인용된 『서자기적』의 삽화들.

60) 楊福綿, 『羅明堅和利瑪竇的葡漢辭典(歷史言語學導論)』, 105-106쪽, 143쪽

그것이 바로 『포한사전』⁶¹⁾이다. 이것은 루제리가 발명하고 마테오리치와 카타네오(Fr. Lazzaro Cattaneo, S. J., 郭居靜, 1560~1640)의 도움에 의해 완성된 라틴어 발음 체계로 한자를 표기한 책이다. 카타네오는 뛰어난 음악가로 명말 관화(官話)의 5개 성조의 차이를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었다고 한다.

여기서 만들어진 로마자 주음 계통은 트리고의 『서유이목자(西儒耳目資)』에도 응용되었다. ‘서양 유생의 눈과 귀의 근거’가 되고자 만들어진 『서유이목자』는 1626년에 프랑스 예수회 선교사였던 니콜라스 트리고(Nicolas Trigault, 1577~1628)가 『서자기적』과 『포한사전』을 성과를 수용하여 로마자로 注音한 책이다. 이 책은 서양인들이 한자와 중국어를 배우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편집된 한자자휘서다. 그가 사용한 주음방법은 명말청초의 방이지(方以智, 1611~1671), 양선기(楊選杞),⁶²⁾ 유헌정(劉獻廷, 1649~1695)⁶³⁾ 등의 학자들에게 영향을 주었다.⁶⁴⁾

61) *Dicionário Português-Chinês. Pu-Han cidian 葡漢辭典. Portuguese-Chinese Dictionary*, Instituto Português do Oriente (IPOR) 東方葡萄牙學會, and Ricci Institute for Chinese-Western Cultural History 利瑪竇中西文化歷史研究所, 2001.

62) 『聲韻同然集』이라는 저작이 알려져 있다.

63) 『新韻譜』(1692년)라는 저작이 있다.

64) 『葡漢辭典』이 선보인 이후, 1575년에서 1800년 사이에 약 60여 종의 중국어 혹은 중국어-외국어 대조 사전이 선보였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P. Pedro Chirino(1604), *Dictionarium Sino Hispanicum*; Victorio Ricci(1609), *Dictionario de la lengua Chinbeo*; Basilio Brollo de Glemona(1694), 『漢字西譯(漢拉詞典)』; Chrétien Louis Joseph de Guignes(1813), *Dictionnaire chinoisfrançais-latin*; Robert Morrison(1815~1823), *A Dictionary of the Chinese Language* (in three parts); Joaquim Affonso Gonçalves(1831), *Dicionário portuguez-china no estilo vulgar mandarin e classico geral*.